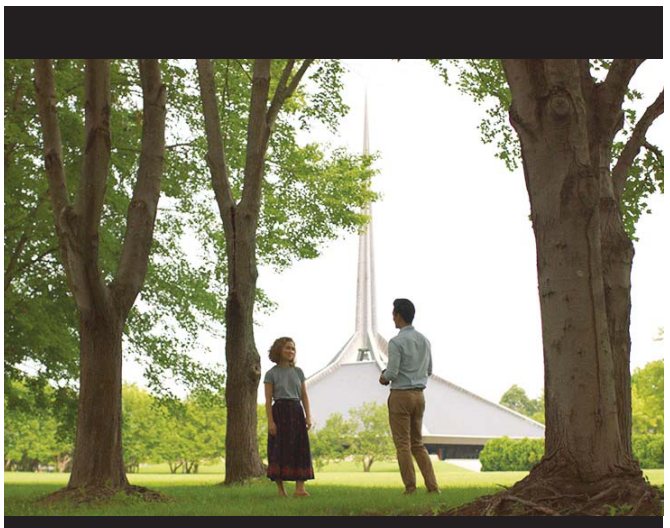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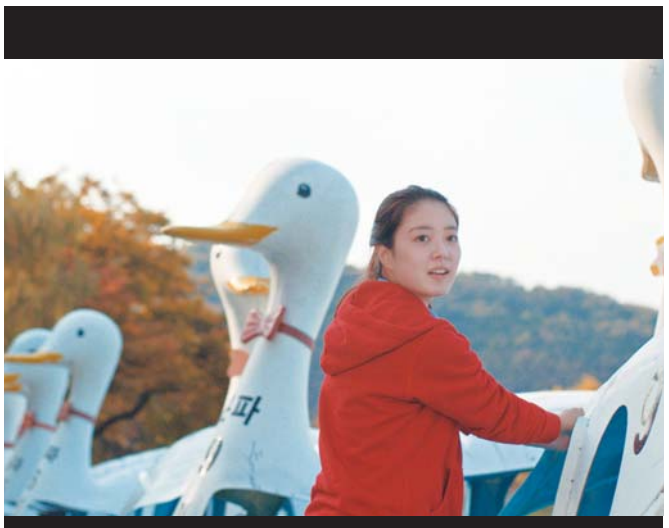
판타스틱 우먼


콜럼버스


수성못

영상에 '지역색'을 입히다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이번주 상영작 3편 공개… 영화는 오늘 개봉
'산티아고' 판타스틱 우먼 · '인디애나' 콜럼버스 · '대구' 수성못 등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산티아고, 콜럼버스, 대구 등 지역적 색채가 영상에 묻어나는 영화 3편 '판타스틱 우먼' '콜럼버스' '수성못'을 19일 개봉한다.

'판타스틱 우먼'은 연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용의자로 몰리게 된 트랜스젠더 마리나가 슬픔을 딛고 세상의 의심과 편견에 맞서 자신을 지키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영화는 칠레 대표 감독 세바스찬 렐리오의 신작으로 현실과 판타지는 오가는 섬세한 연출로 호평을 받으며 제90회 아카데미시상식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다. 또한 트랜스젠더 배우 다니엘라 베가가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 2~3월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진행된 'JEONJU 아카데미 화제작 특별전' 상영작으로 선정되어 감각적인 영상미를 선보인 바 있다.

'콜럼버스'는 각자의 아픔과 불안을 가진 두 남녀가 우연히 만나 건축을 매개로 소통하며 서로를 치유해 나가는 따뜻한 감성을 그린 힐링 드라마이다.

작품은 모더니즘 건축물이 가득한 인디애나주의 작은 도시 콜럼버스를 배경삼아 자연과 아름다운 건축미를 담아냈다.

정식 개봉에 앞서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와 2017 폴링인 전주를 통해서 상영되며 관객과의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수성못'은 대구 수성못을 배경으로, 아르바이트생 희정이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수성못 실종사건에 연루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는 방황하는 청춘의 모습과 감정을 독특한 캐릭터로 표현하며 동시대 많은 청춘들의 공감은 물론 세대별, 성별, 지역별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3월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전주쇼케이스 상영작으로 선정돼 유지영 감독과 함께하는 GV를 통해 청춘들과 소통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누구나 999 프로젝트' 참여업체 상시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누구나 999 프로젝트' 및 '나눔티켓'에 참여를 희망하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올해 말까지 상시 모집한다.

참여 가능한 가맹점은 도내에서 공연 및 전시, 체험, 여행, 문화상품(공예품·도서·스포츠용품) 등과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그 대상이다.

누구나 999 프로젝트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풍성하고 편리한 문화생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공연 및 전시, 여행,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나눔티켓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회원들이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좋은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제도이다.

재단은 누구나 999 프로젝트와 나눔티켓에 참여하는 가맹점의 프로그램과 상품을 적극 홍보하게 되며, 프로젝트를 신청한 가맹점과의 협의를 통해 문화장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이상적 풍류'

국립민속국악원 토요국악초대석
실내악 단체 '이상' 초청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의 21일 토요 국악초대석 국악타파 무대에는 국악그룹 '이상'이 오른다.

국악그룹 이상은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음악을 통해 국악의 저변확대를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내악 단체이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 다양한 장르가 화합하는 월드뮤직을 들려주는 무대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이상적 풍류'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관객과 소통할 수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공연이 될 수 있다'는 국악그룹 이상이 가진 모토를 실현하는 자리다.

자유롭고 멋스럽게 노는 일이 곧 '이상적 풍류'라는 이들은 비나리와 경기도당굿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관객참여 실내악곡 '굿'으로 흥을 돋운다.

판소리 춘향가를 소재로 한 '서울타령', '춘향난봉가', 민요를 재구성한 '새타령', '액맥이 타령' 및 고려가요 '정읍가' 등 전통음악을 소재로 한 곡부터 'Urban Piri', 'Think of you', '자연으로' 등 현대사회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곡들까지 다채롭게 선보인다. /정해은 기자

서철원 전주대 객원교수 '혼불, 저항의 감성과 탈식민성' 출간
최명희 소설가 20주기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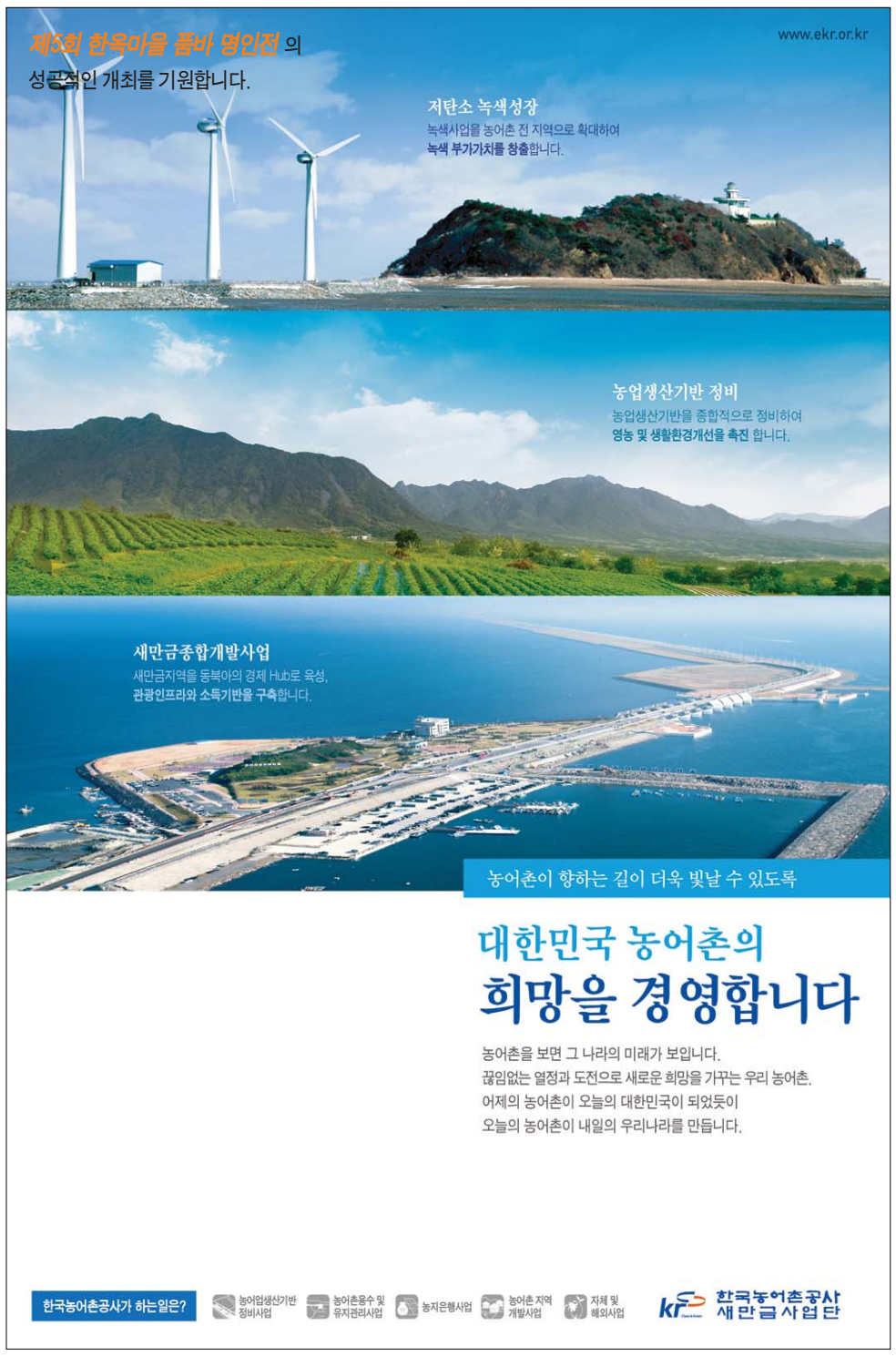
서철원 전주대 객원교수가 소설가 최명희의 20주기를 맞아 '혼불, 저항의 감성과 탈식민성'(태학사·2018)을 펴냈다.

저자는 역사·민속·신화·제도 등 우리의 다양한 전통을 다룬 소설 '혼불' 속 전통 복원의 의미가 민중의 역사와 민족 정체성 회복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서 교수는 혼불의 문학적 성격을 파농·슬레먼·무어길버트의 탈식민주의 맥락에서 규명한다.

'전통의 복원' '민중의 역사' '민족 정체성 회복'을 바탕으로 주제를 구현하는 혼불은 매안마을 양반층, 거멍굴 하층민, 고리배미 상민층 간의 마을과 마을을 잇는 향촌공동체에 의해 방대한 서사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또 등장인물들의 생애와 체험적 요소가 작품의 성격을 이끌어낸다고 소개했다.

특히 혼불은 '전통의 복원'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이라고 분석. 이것은 전통의 복원을 상위 범주로 하여 그 아래 문화 유형으로서 전통의 기획, 피식민자로서 문화적 정체성, 전통의 근대와 식민주의 모순성에 따른 낙원 회복을 위한 망향의식 등 세부적인 하위범주를 구성하고 있다고 봤다.

여기에는 전통의 복원 의미가 매안마을 양반층을 중심으로 소설 내부에 내재해 있으며, 이것은 역사·민속·언어·지리·신앙·신화 등과 결부해 민족정체성 회복이라는 큰 명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풀이한다.

제12회 혼불학술상 수상자인 서철원 교수는 "일 년여 동안 원고(학술상 수상논문 '혼불의 탈식민성 연구')보다 향상할 수 있는 지점까지 수정·보완해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내놓았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